

시론 IMF 극복의 지혜 ②

과소비는 살생이다

IMF시대라는 난국을 맞으면서 오히려 이 난국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위기가 그냥 기회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불교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불교계에 만연되어 왔던 현실의 문제와는 동떨어진 뜬구름 잡는 불사, 돈으로 신앙심을 과시하는 허영에 찬 기복불사 등 이 난국을 계기로 과감하게 청산하여야 한다.

왜 그러한가? 내가 나의 삶에 필요한 이상을 자연으로부터 취하는 것은 바로 다른 생명의 몫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선 과소비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율까지 범하는 것이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병든 자연의 생명력을 죽여 버리는 불사, 돈으로 신앙심을 과시하는 허영에 찬 기복불사 등 이 난국을 계기로 과감하게 청산하여야 한다.

불자들의 계율 준수 국가위기 해소 도움

불자의 의식 전환에 고리가 될 것은 바로 불자들이라면 모두 기본적으로 지켜 나가야 할 계율의 준수이다. 계율이 우리 사회와 온 인류가 당면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의 참된 삶을 이끌어 나가는 실천적인 원리가 되도록, 그 본래적인 위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가장 강도가 되는 '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는 계에 대해 생각해 보자. 꼭 내가 닭 모기자를 비틀어 죽여야만 살생인가? '바퀴벌레를 죽여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는 물음이 불자들이 갖는 '불살생'의 계율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물음이어야 하는 것인가?



성태용

(건국대학교·본지 논설위원)

위와 같은 좁은 차원의 해석에 매달려 있으면 그 근본정신은 제대로 드러낼 수 없으며, 현실문제에 이르는 합당한 신행으로도 나아갈 수 없다. 계율의 근본 정신은 바로 '모든 생명에 대한 크나큰 자비'일 것이요, '불살생'의 계율은 그러한 정신을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실제 현실 생활 속에서 직접 생명을 죽이는 일과 연관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불자들은 '나야 생명을 직접 죽인 일이 별로 없지...' 하는 안이한 의식에 머물러 있기 십상인 것이다.

그러한 불자들에게는 "과소비"는 바로 '살생'이다라는 말이 전혀 납득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과소비는 살생이다. 그리고 현대의 모든 사람들이 상업광고에 취하고, 무반성적으로 욕망의 충족을 위해 달려나가는 상황에서는 온 인류가 모두 무자비한 살생자

들이다. 왜 그러한가? 내가 나의 삶에 필요한 이상을 자연으로부터 취하는 것은 바로 다른 생명의 몫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선 과소비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율까지 범하는 것이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병든 자연의 생명력을 죽여 버리는 불사, 돈으로 신앙심을 과시하는 허영에 찬 기복불사 등 이 난국을 계기로 과감하게 청산하여야 한다.

절약하며 사는 것 참다운 신행운동

눈 앞의 이익을 위한 절약이 아니라 참다운 절약을 행하는 것은 오히려 참고 통스러운 일일 수 있다. 또 어려운 상황이 지나면 금방 내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불자들은 이러한 삶을 부처님의 삶을 본받는 가장 자랑스런 삶으로 담당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 남들이 버린 가장 더러운 옷감으로 옷을 지어 입으셨던 부처님의 삶, 그것을 자랑스럽게 본받아 나가는 불자들의 참다운 신행운동이 바로 자신의 생명을 올바르게 세우고, 우리 사회와 우리 경제를 올바르게 세우는 힘으로 합쳐져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열린마당

포교사의 법복착용

지난해 12월 다섯 차례에 걸쳐 열렸던 포교사 간담회 때마다 참석하신 포교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법복 통일'을 포교원에 건의했다. 군포교를 하고 있는 한 포교사는 평상복을 입고 사병들에게 설법할 때와 법복을 입었을 때 병사들의 반응이 다르며 법복의 통일을 제기했다. 포교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종단의 입장은 포교사들과는 조금 다르다. 포교사 법복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포교사 지위·역할 논의 선행돼야

성수 (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

먼저 포교사 법복 착용에 대해 종단의 입장이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밝힌다. 포교사들의 종단에 대한 불신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승-재가 사이의 예민한 사안인 법복착용 가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오히려 종단과 포교사들의 거리를 더욱 멀게 하는 소지도 있다. 따라서 포교사의 법복착용 논의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다. 포교사 법복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종단내에서의 포교사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스님의 보조자로서의 위치를 가질 것이냐, 아니면 스님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의식집전의 경우 예불과 각종법회 등 기본의식에 한정할 것인가, 49재와 불공 등 전문의식까지 가능케 할 것인가에 대해 아직 통일된 논의는 없다. 아울러 포교원이 계율근본주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종단전통 고려 제도적보장 신중"

임동현 (포교사단 사무국장)

포교사들의 법복 착용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군법당의 경우, 평상복보다 법복이 병사들의 주목을 모은다. 일단 법상에 오르면 종교적 권위의 담지자가 되며, 법복은 권위를 더해 준다. 이런 점에서 법복 착용을 원하고 있고, 포교현장에서는 법복을 착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종단은 재가포교사의 포교당 운영을 사실상 허용치 않고 있다. 포교당의 종단등록시 반드시 조계종단 소속 스님들이 개설할 때만 등록을 받아들인다. 이는 재가수행자의 포교당 개설은 물론 의식집전을 허용치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현실과 종단의 전통과 규정의 합리적인 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권위만 덧씌우는 꼴...부작용 우려

최일산 (월곡청소년센터 관장)

포교사의 법복 착용에 대해 먼저 반대라는 입장을 밝힌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포교사는 타인을 제도하고 설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신행의 모범을 보임으로서도 가능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언설로서 펼칠 수도 있다. 또 생활인으로서의 모범적인 모습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수많은 포교사 중에서 비불교인이나 불교인문자로부터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를 먼저 생각하게 한다. 법복은 말 그대로 법의 권위를 상징한다. 자칫 자격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포교사들이 의외로만 권위를 지닌다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포교사의 법복착용에 대해 재고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다.

스님 법복과 구별 통일화시켜야

권지홍 (동국불교연구원장)

그동안 재가법사들은 통일된 모델이 없이 다양한 법복을 입어 왔다. 군법사들은 군법사대로, 재가법사들은 단체별로 나름의 법복을 입어 왔다. 심지어는 같은 종단 안에서도 10여종의 법복이 각양각색의 디자인으로 사용되었다. 같은 부처님의 법을 배우는 불자들이 사상적인 통일은 합들지라도 외형적으로나마 통일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최소한 의식집전과 함께 법복은 통일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율장의 가르침에 따라 여법하게 법복을 제정되 대중의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가정)법제정위원회를 통해 역사성과 보편타당성을 따져 공정한 평가와 심사를 거쳐 모델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통일된 법복의 제정은 재가법사 위주로 추진하되, 최종적으로는 종단총회의 동의를 얻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경건과 위엄 상징...예복으로 착용

김재일 (동산반야회 회장)

깊고 오묘한 진리인 불법을 전달하는 법사 및 포교사들은 외형적으로도 위엄이 있어야 신망받을 수 있다. 의복은 때와 장소에 따라 구별돼야 한다. 평상시에는 사복을 입고 예식을 치를 때는 예복을 입는 것처럼 전법을 수행할 경우 법복은 필수 불가결하다. 법복은 또한 포교사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역할도 한다. 무책임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법복을 통해 신중하게 만들어 준다. 실제로 이같은 사실은 법사 모임에서 현장 실습을 통해 검증된 바 있다. 단 무분별한 법복 착용은 오히려 본래 의미를 해칠 수 있다. 의식교육과 영가천도, 설법, 포교사법회 허용하고 헌직 승려라는 복식 형태가 구분돼야 재가법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 수 있다.

자부심 갖게해 포교극대화 일조

이형탁 (석왕사 신도회 총무)

통일된 포교사의 법복은 먼저 깨끗하고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포교활동에 매우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무엇보다 포교사의 법복이 통일, 제정된다면 법복은 그 자체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대중 앞에 서는 사람의 정갈한 의상은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의 시적인 점을 생각한다면 법복제정은 더욱 절실하다고 본다. 현재 개인적으로는 동산불교대학 의식반을 졸업하면서 받은 법복을 입고 있으나 그 법복에 대한 일반불자들의 인식이 없었으나 사실상 법복을 입지 않을때와 큰 차이가 없다. 통일된 법복의 제정은 자부심과 함께 포교사의 활동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생각한다.



◇포교효과 극대화를 위해 포교사 법복 착용을 보장하고 법복을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과 포교사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사진은 한 불교대학 의식교육반 입학식 모습.

재가불자들이 최초로 법복을 입은 것은 50년대 말, 청담스님이 천주교 노기남주교의 조인에 따라 당시 전국을 다니며 불교강화를 펼쳤던 박인일 권지홍 두 사람에게 입도록 했다. 포교사들은 이미 포교현장에서 법복을 착용하고 있으나, 종단에서 통일된 법복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말에는 포교사들의 의식집전을 허용해야 한다는 뜻도 들어 있다.

종단의 입장은 포교사들과는 조금 다르다. 조계종총무원 총무부의 한 관계자는 "스님이라고 해서 모두 법상에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반응을 보였다. 법복을 통일 제정, 착용토록 한다면, 포교사들의 법문 및 각종 의식집전을 종단에서 인정하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쉽게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아직까지 법문이나 의식집전은 승가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확고한 것도 현실이다.

50년대말 처음 입어 재가역할 '민감사안' 승-재가 입장차 뚜렷

또 종단에서는 포교사들의 포교당 개설을 명문화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단등록시 반드시 조계종단 소속스님이어야 등록을 받아들인다. 포교사의 포교당 개설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중들 앞에 서는 기회가 많은 포교사들은 대부분 법복을 착용하고 있다. 불교교양대학들도 졸업과 함께 법복을 맞춰 입도록 하고 있다. 일부 스님들도 사찰에서 개설한 각종 강좌에서 강의하는 포교사들에게 법복을 입도록 권유하고 있다. 사찰 또는 출신 불교대학별로 법복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자연스럽게 제기된 것이다.

포교현장에서의 법복착용은 일반화되어 있다. 현실이 그렇다고해서 승-재가의 구분, 계율을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현실과 제도 사이의 바람직한 조화를 논의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정성은 기자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 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 후 3년 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에 탁월한 효과. 진료: 매주 목요일, 일요일. 주위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지요?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

홍화마을 홍화씨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식품 의약품안전국(F.D.A) 품질공인!! 홍화씨의 효능은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속 홍화씨 작목반 박래환 TEL 053)943-9371 02)3431-0743/0522)61-4424 FAX 053)943-9371

천천우산가옥의 신비! 기(氣)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정철 혈액순환, 고혈압, 당뇨, 신경통, 관절염, 두통, 불면증, 심장병, 귀울림, 치매, 신장병, 갱년기장애, 피부미용, 생리통, 오돌, 스트레스, 햇병, 노화방지... 푸른차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들읍시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결과: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골연골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 91.3%, 어지러움증91.3%, 동통83.3%, 고혈압77.8%, 관절염60%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기록했다. (93.2.17 서울신문) 玉山家 藥行에서 사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프렐망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777-0105 (수편번호가)

한마음 전통메주 청농식품 천등산 한마음 메주의 특징: 송복 송주식 산척면이 재배한 순수 곡물(백태)을 전통 산 맑은 청정수로 씻고 삶아 향도원에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자연 발효시킨 옛날 우리 할머니들께서 손수장을 담그시던 그 맛을 그대로 재현한, 우리 메주입니다. 천등산 한마음 메주는 이렇게 만들어 집니다. 울고 넘는 백담재를 소재한 천등산 자락의 관동부락에서 부락인이 직접 청정수여 써부리고 재배하여 수확한 햇곡만을 사용합니다. 천등산 자락의 맥반석 단지의 청정 지하수를 이용하여 콩을 씻고 삶아 만듭니다. 신비의 원적효소를 발효한다는 향도 온돌방에서 빗물을 이용 순수하게 자연발효시켜 전통적인 맛과 향이 나는 메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청농식품이란? 본 청농식품은 1996년 농림부가 전통식품 제조업체(메주)로 지정한 확실한 우리농민의 업체입니다. 본 청농식품은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부락민 5인이 모여 만든 곳입니다. 본 청농식품은 신도봉의 정성과 국민건강증진을 최대목표로 한겨울 내내 열심히 우리의 맛과 향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주 소: 충북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115-1 전 화: 0441) 853-9982 핸드폰: 011) 467-9982